

|유아~어린이|

〈아무것도-존 케이지와 4분 33초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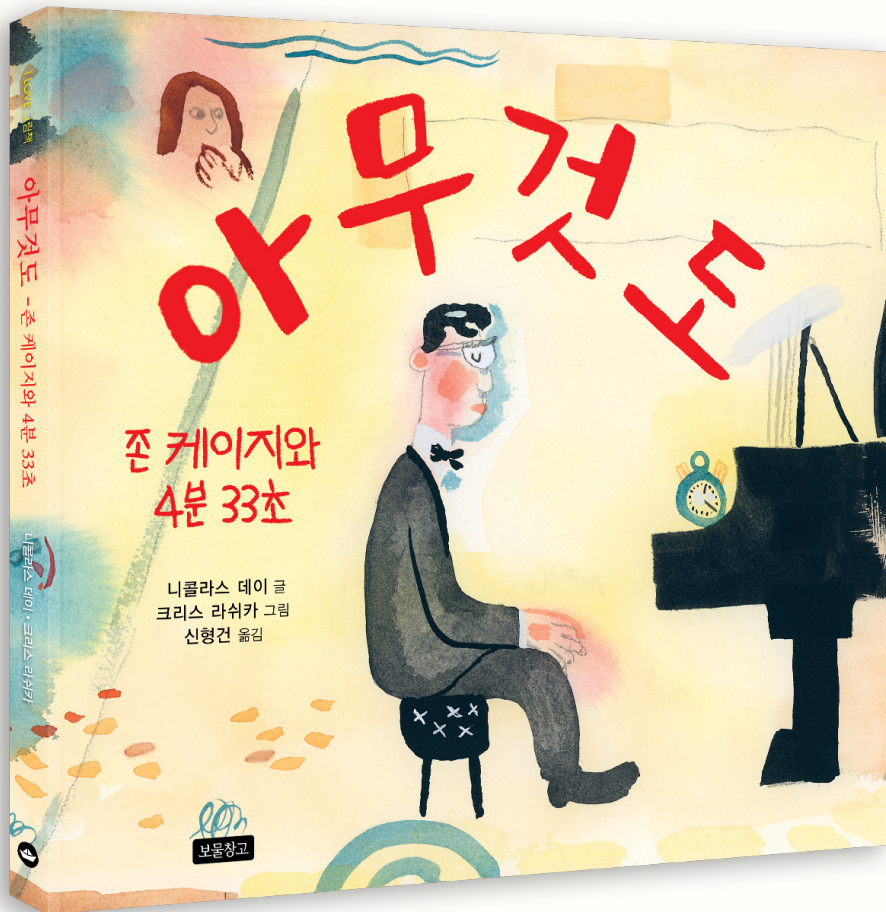
니콜라스 데이 글 | 크리스 라쉬카 그림 | 신형건 옮김 | 보물창고 펴냄

★〈매사추세츠 도서관〉 수상작

★〈뱅크 스트리트〉 올해의 최고의 어린이 책

★〈시카고 공공 도서관〉 올해 최고의 어린이 책

★〈에반스턴 공립 도서관〉 선정 어린이를 위한 훌륭한 책



“엉뚱하면서도 깊이가 있다.” -〈커커스 리뷰〉

“바쁜 오늘날, 사람들이 ‘아무것도’를 탐구하기를 원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삽화와 함께 담겼다. 읽어 주기에 참 좋고, 모든 도서관에서 꼭 소장해야 할 책.”

-〈스콜라이브러리저널〉

“놀라운 그림책. 라쉬카의 생동감 넘치는 수채화, 연필, 잉크 그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콘서트홀 주변에서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포착해 낸다.”

-〈어린이도서관센터〉

읽기 전 활동

1. 4분 33초는 무엇을 의미할까요?
2. 앞표지에서, 피아노 앞에 앉은 사람은 누구일까요? 또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?
3. 뒤표지에서, 귀에 연필을 꽂은 사람은 누구일까요? 그 주위에 쓰인 음악 기호들은 무슨 뜻일까요?

읽기 중 활동

1. 4분 33초가 지난 뒤, 객석에서는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요?
2. 책에 나오는 의성어와 의태어들을 찾아보아요.



3. 존 케이지의 인생을 바꿔 놓은 두 인물은 누구일까요?

4. 존 케이지의 〈4분 33초〉의 제목은 어떻게 정해졌을까요?

읽은 후 활동

1. 존 케이지가 만든 또 다른 작품들을 찾아 함께 감상해 보아요.

2. 존 케이지는 발명가일까요? 작곡가일까요? 함께 토론해 보아요.

3. 4분 33초 동안 내 주변의 소리를 녹음하여 모두 함께 공유해 보아요.

4. 우리 주위의 소음을 다양한 그림과 색채로 표현해 보아요.

